

KEPCO

2025 September vol.627

비슷함은 공감으로
다름은 이해로 물드는 시간

소통



4

안전 캠페인

타협없는 안전관리!

위험하면 작업중지!

6

HOT ISSUE 1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다

2025년 을지연습 현장 스케치

8

HOT ISSUE 2

미래를 향한 협력, 베트남 원전협력 파트너십 강화

10

HOT ISSUE 3

2025 데이터센터 코리아 컨퍼런스 참여

한전의 전력통신망과 협력모델

12

HOT ISSUE 4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에 광역 지원체계 가동

14

HOT ISSUE 5

강원도 전력설비 경과지역 무료 건강검진 시행

16

SIGHT

‘산재와의 전쟁’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안전관리 노력

에너지공기업 중대재해 예방 간담회 및 전국 전력사업처장 회의

20

KEPCO STORY

지역 분산에너지 시대로의 전환 가속화,

국내 최초 장기 배전계획 수립 발표

22

Issue Talk

이달의 법률 이슈 이모저모

24

궁금한 이야기 K

유리창이 전기에너지를 생산한다?!

유리창호형 태양전지기술, 페로브스카이트

26

THANKS FOR PRESENT

천년고도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비타민 그 자체, 경주지사

30

COVER STORY

고립을 넘어 소통, 그래서 ‘어쩌면 해피엔딩’

32

SPACE

빛과 곡선, 그리고 소통의 무대

트라이보울

36

CURATION

빛과 색으로 떠나는 시간 여행

40

TREND 1

“지금 아니면 안 돼!”

순간을 사는 우리들의 방식, ‘제철코어’

44

TREND 2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빠진 세계, 왜 난리일까?

46

KEPCO TALK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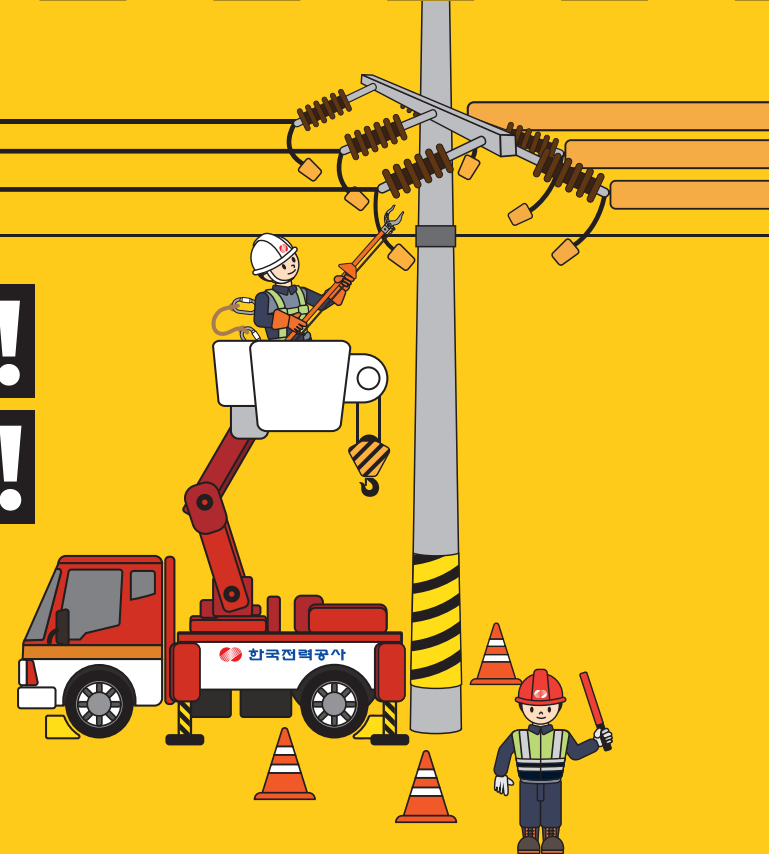
INSTAGRAM

50

KEPCO QUIZ



타협없는 안전관리! 위험하면 작업중지!



Golden -Rules 11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법칙



1 개인
안전장구 착용



2 고임목
4개 이상 설치



3 작업계획서 TBM
작성 필수,
공법 임의변경 금지



4 작업차량
전도방지 조치



5 작업반경
출입금지,
후진 시 전담유도차 배치



6 인양물 고정장치,
하부 출입금지



7 안전대 착용
안전고리 체결



8 검전, 접지
충전부 방호



9 밀폐공간 작업
허가절차 준수



10 맨홀 내 작업 시
작업반경 출입 금지



11



배전 COS투개방 및 지상, 가공기기(공사용개폐기 포함) 조작 시 적정공구 사용



송전 철탑 승탑 시 추락방지 와이어 및 안전그네식 안전대 필수 사용



변전 변전 기자재 운반 시 저상용 운반장비 사용 및 벨트슬링 하중 검토 철저



토목 단부, 개구부 등 추락위험 장소에는 추락방지(안전난간, 덮개 등) 방호 조치



건축 비계설치 장소에서 작업 시 작업발판 및 추락방호망 설치 철저

01 HOT ISSUE

02 HOT ISSUE

03 HOT ISSUE

04 HOT ISSUE

05 HOT ISSUE



HOT ISSUE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다 2025년 을지연습 현장 스케치

Text 양은선 Photo 김보라, 황지현 자료제공 안전처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2025년 을지연습이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진행됐다.

연습은 8월 18일 새벽 6시, 전시 필수요원 비상소집으로 시작되었다. 비상발령 문자 수신 후 1시간 이내에 지정 장소로 집결한 CEO, 경영진, 차·실(단)장을 포함한 759명은,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각자의 임무를 확인했다. 오전 9시부터는 을지연습 최초 보고가 시행되었다. 을지연습 시작을 선포하고 초기 훈련상황을 전파하기 위함이다. 조원영 안전처 비상계획실장은 총무사태 선포상황을 설명하고 비상대비업무를 소개하였다. 아울러 연습목표, 훈련방향, 연습기구, 훈련 주요내용, 을지연습 일정을 공유하였다. 이어서 비상업무 점검과 전시상황실 개소가 진행됐다.



오후 2시부터는 이회완 전 국가보훈부 차관이 안보특강을 진행했다. 제2연평해전 참전 당시의 참혹한 상황을 생생하게 전하며, 당시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현재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안전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며,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웠다.

8월 19일 서울본부 중부전력지사에서 '전력설비 피해복구 실제훈련'이 진행됐다. 중부변전소는 서울북한화력발전소 부지 내에 위치한 변전소로, 당인리변전소와 함께 방호태세가 통합 구축되어 있다. 이번 훈련은 적의 드론 테러 공격으로 중부변전소 변압기가 폭발한 상황에 대응하여 시설방호와 복구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되었다. 총 5단계에 거쳐 단계마다 자세한 행동 지침을 계획해 훈련에 적용했다.

백우기 영업본부장은 마지막 강령에서 "이번 실제훈련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행동 지침 중 꼭 짚어야 할 부분이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었다. 현재 안전 이슈 등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 많은데, 오늘 훈련을 보니 잘 해결할 수 있겠다는 기대가 된다"라고 말했다. 이후 중부변전소 설비 복구 방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장을 순시하며 훈련을 마쳤다.

8월 20일 본사 전 처실과 특수사업소, 지역본부가 함께 참여한 전사 현안토의가 시행됐다. 이번 토의는 부서, 직군별로 발표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송변전, 배전, ICT 등 전 부서가 참여하는 자유토론 형태로 진행됐다. 국가비상사태 시 우리 회사가 위기를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개선할 점을 도출하였다.

김동철 사장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연습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아울러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얻은 성과와 시사점들을 잘 검토하여 총무계획에 반영하는 등 비상대비 분야 업무가 발전,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01 HOT ISSUE

02 HOT ISSUE

03 HOT ISSUE

04 HOT ISSUE

05 HOT ISSUE

02
HOT ISSUE미래를 향한 협력,
베트남 원전협력 파트너십 강화

Text 양은선 Photo 김보라 자료제공 해외원전개발처



한전이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또 럼(To Lam)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원전 인력 양성 MOU 체결, 베트남 국가에너지산업공사(PVN) 경영진 면담, 원전시설 견학 등 다각적인 협력 행보를 통해 양국 간 원전 분야 파트너십 본격화에 나섰다.

방한 첫날인 8월 11일, 한전과 PVN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원전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는 베트남 닌투안-2 원전 사업자인 PVN이 외국 기업과 체결한 첫 원전 협력 MOU로, 공동 실무그룹 구성과 인력양성 프로그램 공동 개발·운영 등을 통해 베트남의 원전 전문 인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베트남이 원전 도입을 재개하며 인력 양성을 중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협력은 베트남의 니즈에 부응하고, 실질적인 사업 참여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튿날인 8월 12일에는 한전 김동철 사장과 PVN 회장이 면담을 갖고, 한전의 원전사업 역량을 소개하며 양사 실무채널 가동을 통한 협력 확대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원전 건설에는 크게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는데, 이는 사



업 기간과 사업비이다. 실제로 건설 중에 사업 기간과 사업비가 대폭 늘어나는 사례가 다수 있다. 그러나 한전은 UAE 바라카원전 건설 당시 35개국에서 온 2만여 명의 인력들과 함께 일하며 사업 기간과 사업비를 지켜냈고, 이는 국제적으로 높이 평가받았다. 이와 같은 한전의 원전사업 역량 소개 외에도 원전사업 재원 조달 방안 및 「원전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 실행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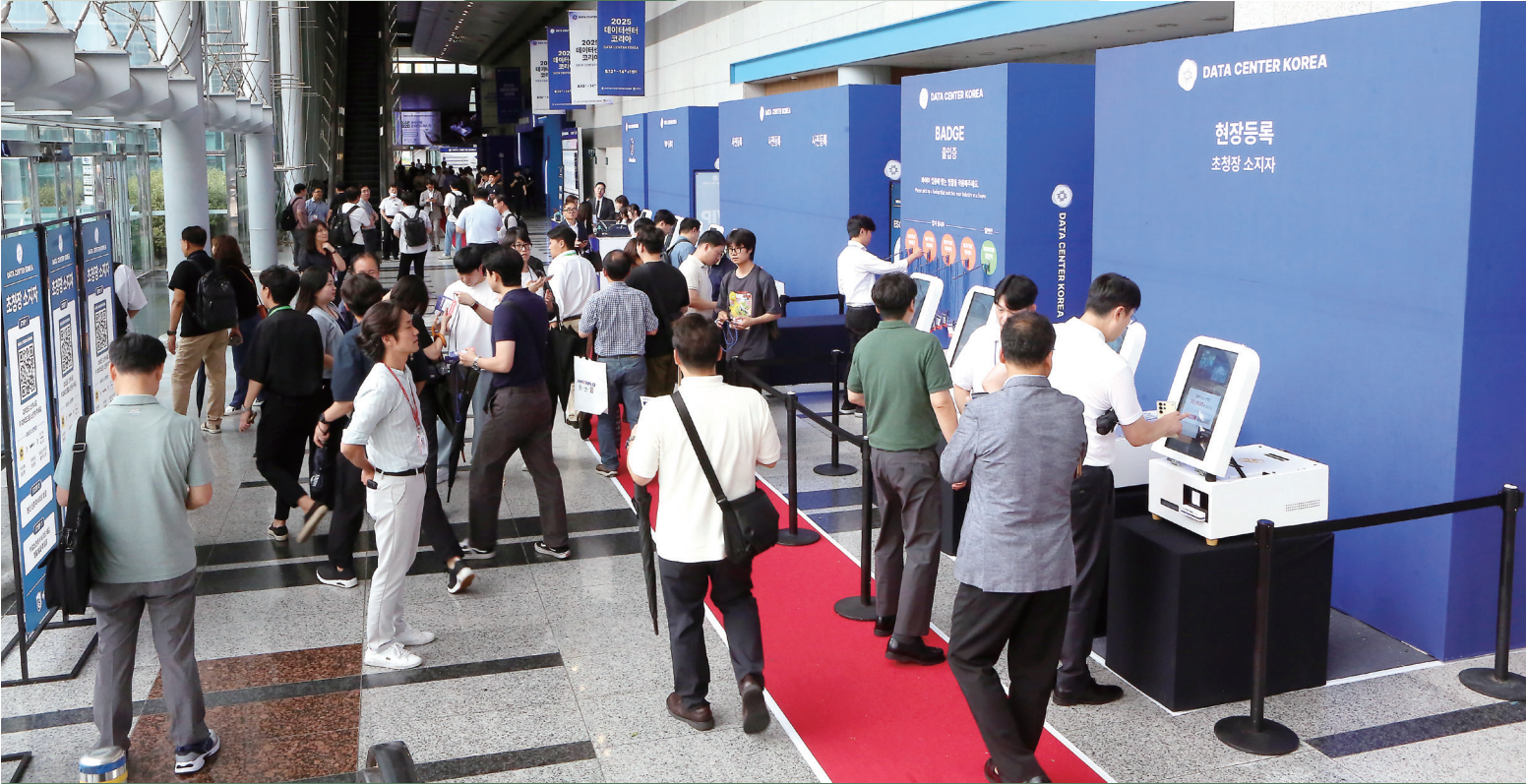
면담에서 김동철 사장은 “한전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사업 역량을 기반으로, 베트남 원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며, “베트남의 원전 협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에는 또 럼 총 서기장과 15개 국내 기업 간 담화가 열렸으며, 한전은 공기업 중 유일하게 참여했다. 한전은 이 자리에서 베트남 내 대규모 발전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고, 베트남 측은 이에 깊은 관심을 표했다.

마지막 날인 8월 13일에는 PVN 회장과 경영진 등 베트남 원전 관계자 18명이 울산 새울원자력본부를 방문해 한국형 원전 설비와 운영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한전은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베트남이 추진하고 있는 원전 사업의 수주 가능성을 한층 높였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다각적인 수주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03

HOT ISSUE

2025 데이터센터 코리아 컨퍼런스 참여 한전의 전력통신망과 협력모델

Text 이윤수 Photo 김도형 자료제공 ICT기획처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서울 aT센터에서는 ‘2025 데이터센터 코리아’가 열렸다. 국내 유일 데이터센터 전문 전시회로서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이터센터’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AI 및 데이터 사용량, 클라우드 등의 수요 급증으로 데이터센터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관련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비가 많이 내리는 날씨임에도, 개막 전부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AI 분야의 급격한 발전으로 데이터센터 관련 산업도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었다. 특별 행사장에서는 테이프커팅식 등 개막식이 진행되었고, 제1전시장에서는 50개가 넘는 기업이 각자의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였다. 데이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설비들뿐만 아니라, 냉각 시스템이나 보안 시스템, 화재 예방을 위한 신소재 등 다양한 품목이 전시되었으며, 각 부스 관계자들이 서로의 전시 내용을 확인하는 등 활발한 교류가 이뤄졌다. aT센터 5층 그랜드홀에서는 AI 시대의 데이터센터 기술 각 분야를

대표하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컨퍼런스가 이어졌다. 300 명이 넘는 데이터센터 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ICT기획처 인프라계획실 윤종현 부장은 홍보영상을 통해 한전의 ICT에 대해 소개한 뒤, ‘한전 전력통신망 소개 및 협력모델’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AI와 클라우드의 확산으로 데이터 생성량과 네트워크 트래픽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데이터센터는 단순한 정보 저장소에서 벗어나 AI·클라우드 서비스를 주도하는 중심축으로 부상 중이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는 AI로 인한 데이터센터의 수요가 2030년까지 약 3.5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이렇듯 거대한 흐름 속에서, 데이터센터 간 대용량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케이블 기반의 백본망·백업망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서 한전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한전은 전력사업을 위해 자체적인 통신선로와 전송장비를 시설하여 전국 단위 초고속 통신망을 운영 중이다. 전국을 촘촘히 연결하는 한전의 광케이블망은 도합 36,857km에 달한다. 가히 ‘데이터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전 전력통신망의 장점은 규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송전철량 최상단에 위치하는 등 물리적 안정성이 최고 수준이고, 전국에 산재한 전력설비를 활용하여 유연한 확장이 가능하며, 전력설비 전용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타 통신사 대비 보안성이 탁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전국 15개 관제소를 통해 24시간 이상 유무를 감시하며 고품질 무중단 전용회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한전은 이와 같이 우수성이 검증된 전력통신망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기 위해 외부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전의 통신망은 전력설비가 닿는 모든 곳에 구축되어 있어 수요가 있는 어디든 회선 제공이 가능하다. 데이터센터 간 고속 회선과 이중 백업망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 한전망을 기반으로 민·관 협력의 다양한 공동 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 한전의 통신 인프라를 이용하는 비용은 굉장히 저렴하다. 민간 통신사의 1/8 수준밖에 안 되는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할 수 있어, 비용 절감을 원하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하지만 한전이 이러한 인프라를 활용해 수익사업을 하는 데에는 법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다. 한전의 수익창출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국가를 대표하는 공기업으로서 한전의 통신망을 이용하고자 하는 민간에게 도움을 주어 국민과 국가경제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한전은 올해 4분기, 대외 파트너와의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공동사업 모델을 구체화하여 내년 1분기에는 중장기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MOU 체결 등을 계획 중이다. 전력공급을 통해 세상을 환히 밝힌 한전이, 이제는 통신 인프라의 주체로 더욱 밝은 미래를 열어가길 기대해 본다.





04

HOT ISSUE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에 광역 지원체계 가동

가평, 산청 등 7월의 극한호우로 재해를 입은 지역의 조속한 일상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한전이 앞장섰다.

Text 장은경 Photo 김보라



집중호우가 시작된 7월 16일부터 한전은 본사와 전국 사업소 비상근 무 인력 9,000여 명을 긴급 투입하여 실시간 대응에 나섰다. 김동철 사장도 지난 7월 21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속출한 경남 산청군 수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한전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조속한 복구에 총력을 다하라”라고 당부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송전선로 철탑 1기 손상, 변전소와 철탑 사면 유실 3개소, 변전소와 전력구 침수 5개소, 전주 1,592기 및 변압기 542대 등

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금액은 약 72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전은 약 315억 원을 투입하여 신속하고 완전한 전력공급 복구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경기도 가평군과 경남 산청군 등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는 1,400여 명의 인력과 비상발전기 등 장비 650여 대를 긴급 투입하여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했다.

또 7월 25일로 예정되었던 전사 혁신토론회를 연기하고, 김동철 사장과 최철호 전력노조위원장을 비롯한 경영진, 본사 차·실장, 지역본부장, 노조간부 등 임직원 150여 명이 경기도 가평군 상면과 경남 산청군 등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 구호 물품 기탁, 침수 주택 청소, 가재도구 정리,

급식 봉사 등 노사합동 복구활동을 펼쳤다.

복구 활동 외에도 특별재난지역(경기도 가평, 경남 산청·합천,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등)으로 선포된 6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호우 피해 건축물에 대한 1개월분 전기요금 감면, 멸실·파손 건축물에 대한 전기공급 시설부담금 면제 등 약 7.2억 원 규모의 정책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며 전력그룹사와 함께 10억 원의 성금도 기탁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갑작스런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라고 밝히며, “국민께서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휴일과 밤낮없이 안정적 전력공급과 피해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력그룹사: 한국수력원자력(2억 원), 한국남동발전(5천만 원), 한국중부발전(5천만 원), 한국서부발전(5천만 원), 한국남부발전(5천만 원), 한국동서발전(5천만 원), 한국전력기술(5천만 원), 한전KPS(5천만 원), 한전KDN(5천만 원), 한전원자력연료(5천만 원), 한전FMS(1천만 원), 한전CSC(1천만 원), 한전MCS(1천만 원)



05
HOT ISSUE

강원도 전력설비 경과지역
무료 건강검진 시행

날씨에 대한 표현으로 '기록적인, 역대급'이라는 표현이 일상어가 되어 가고 있다. 올여름도 역대급이었다. 기후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폭우와 폭염, 태풍 등 재해, 재난의 강도가 거세어져, 매해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이럴 때 소외계층을 드려온 그들은 더 짙어진다. 위기에서 그들을 막아줄 우산이 없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에의 위기에 처한 이웃들의 그늘진 현장에 어김없이 함께 하는 이들이 있다. 의료서비스가 부족한 강원도 주민들에게 찾아가 무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전의 가슴 뜨거운 현장을 돌아본다.

Text 장은경 Photo 김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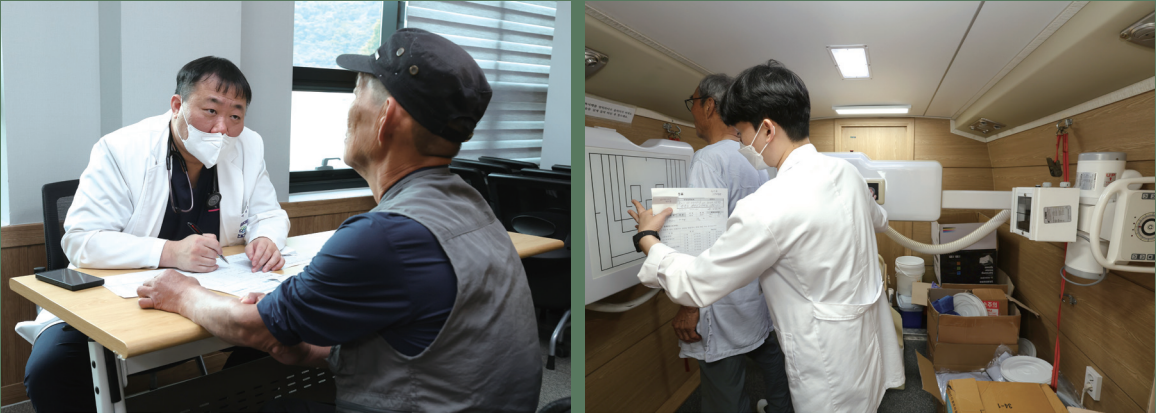
한전은 한일병원과 함께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이틀 동안 강원도 전력설비 경과지 주민들에게 무료 종합 건강검진과 상담을 시행했다. 이번 의료봉사는 HVDC건설본부, 강원본부와 한일병원이 공동으로 협력해 민·관 협업형 사회공헌활동으로 진행했

으며, 한전 기부금 6,000만 원과 한일병원 사회사업기금 2,800만 원 총 8,800만 원을 투입해 지역주민의 건강 지원에 나섰다. 검진대상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정선군 굴암리·가수리, 평창군 지동리 일대 주민 총 97명이다. 한일병원 의료진



21명과 한전 봉사단 10명 등 총 31명이 현장을 찾아 주민 대상 정밀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검사항목은 X-ray 촬영, 당뇨·체장 기능, 간 기능, 종양 검사, 뇌·심혈관 질환, 혈액검사 등 총 17개 항목으로, 진단 후에는 개별 건강상담과 의약품도 함께 제공했다. 특히, 주민들에게 장수를 기원하는 '건강국수'를 제공해 단순 건강검진 외 정서적 교류도 함께 이뤄졌다. 행사 당일에는 김호기 한전 HVDC건설본부장과 조인수 한일병원장, 지역 관계자들도 함께해 주민들과 의료진을 격려했다. 또한 의료봉사 종료 후에는 인근에서 생산된 특산품도 구매해 지역 농가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한전은 11월 경북 봉화군에서 두 번째 의료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올해 말까지 총 250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봉사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호기 한전 HVDC건설본부장은 “건강검진을 받으러 오신 어르신들의 무병장수와 행복을 기원한다”라며 “앞으로도 한전은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다양한 상생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재난을 당한 이웃에게 신속히 달려가 도움의 손길을 보태고, 의료서비스의 그늘에 찾아가 생명의 빛을 전하느라 무더위조차 잊은 한전인들의 계절은 그렇게 지나가고 또 다가왔다.





‘산재와의 전쟁’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안전관리 노력 에너지공기업 중대재해 예방 간담회 및 전국 전력사업처장 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이다. 역대 정부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된 7월 29일 국무회의 심층 토론에서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망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 비유하면서 “예상할 수 있는 일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Text 이범석 Photo 김보라,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제공 배전계획처

지난 8월 5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에 소재한 신가평변환소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방문했다. 동해안-수도권 HVDC 건설사업의 1단계 중점인 신가평변환소의 건설현장에서 김 장관은 전력인프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한전과 한수원, 5개 발전자회사,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까지 9개 에너지 공기업 사장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에너지 공기업 사장단에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최고경영자의 의지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한 충분한 예산 투입과 현장에 적합한 안전절차를 확립하고 충분한 안전인력을 투입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로 의견을 모았다. 또 협력사 근로자도 안전한 작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상생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오늘 이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해당 기관에 산업부가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페널티를 부여하겠다”라고 밝히며 “불법 하도급,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적 사안이 발견된 경우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아있는 하계 전력수급기간 동안 우리 국민들의 전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력설비 운영·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정부의 산업재해 근절 의지표명에 대한 후속조치 중 하나로 한전은 8월 13일 나주 본사에서 근본적인 안전 혁신방안 마련을 위해 정치교 안전&영업 배전부사장이 주관하는 전국 전력사업처장 회의를 개최했다. 안전처 등 본사 관련 처·실장 및 전국에서 모인 전력사업처장 등 50여 명과 함께 직영 작업, 고·저압 협력회사, 송가공사, 현장관리, 안전 업무 효율화, 조직·인력 등 총 6개 분야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다.

단순한 대책 나열을 넘어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 방법, 안전관리 종사자 및 현장직원에 대한 안전 확보 방안,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QR코드 활용 등 현장 작업자 관리방안, 본부별 트레이닝센터를

활용한 실습교육 확대 등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제시됐다. 특히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신속한 의사결정과 현장 맞춤형 해결책 도출을 위해 6개 분야별로 주관 사업소를 선정하고 과제 발굴부터 수행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정치교 부사장은 “안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절대적 가치”임을 분명히 하며, “모든 관리자는 안전을 책임진다는 무거운 사명감으로 현장에 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업무 프로세스의 최우선을 안전으로, 단 한 건의 산업재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교육 확대, 제도 개선, 현장점검 강화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500kV 신가평 변환소

안전보건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

정치교 부사장은 “안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절대적 가치”임을 분명히 하며, “모든 관리자는 안전을 책임진다는 무거운 사명감으로 현장에 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Long-Term Distribution System Planning

지역 분산에너지 시대로의 전환 가속화, 국내 최초 장기 배전계획 수립·발표

Text 이상민 배전망사업실 배전망기획담당 차장

한전은 사내 이사회, 전기위원회 보고를 거쳐 지난 7월 29일 제1차 장기 배전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대외에 공식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 제18조에 따라 수립된 국내 최초의 법적 장기 배전계획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마련된 첫 번째 대외 공식 계획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그간의 배전망 설비계획은 전기사용자 및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신청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주로 1년 단위의 단기계획 형태로 수립되었다. 그러나 최근 태양광 등 소규모 분산에너지의 급격한 보급 확대로 인해 기존 방식 만으로는 계통 안정성과 투자 효율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처럼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고, 지역 기반의 분산에너지 시대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계획은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급변하는 배전망 환경과 정책 흐름, 기술 변화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수립되었다.

제1차 장기 배전계획의 주요 내용

이번 계획의 법적 근거인 분산에너지법 제18조(배전망 증설·운영계획 제출 등)에 따르면, “한전은 배전사업지역 내에 설치·운영되는 분산에너지의 종류와 규모 등 실태를 조사하고, 해당 지역의 분산에너지 수용을 위한 배전망 증설 및 운영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5년 이상의 계획을 분산에너지 실태조사 후 6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한전과 정부는 해당 법 이행을 위한 계획 수립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새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 및 지역 분산형 에너지 체계 전환의 기초를 반영하여 본격적으로 계획 수립을 추진하였다.

이번 장기 배전계획의 수립 목표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계통 운영 안정화에 기여하고 배전망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의 편익을 향상하고자 한다. 계획 기간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장기 송변전설비계획(2024~2038년)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으로 정하였으며, 분산에너지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배전망 증설·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신기술·제도 도입 방안도 함께 포함하였다.

계획 수립에 앞서 한전은 전국 173개 지방자치단체(소규모 발전사업 허가 기관)와 협력해 분산에너지 실태조사를 시행하였다. 배전망에 향후 접속될 분산에너지 용량을 분석하기 위해 지자체의 발전사업 허가 현황, 한전 접수 실적 등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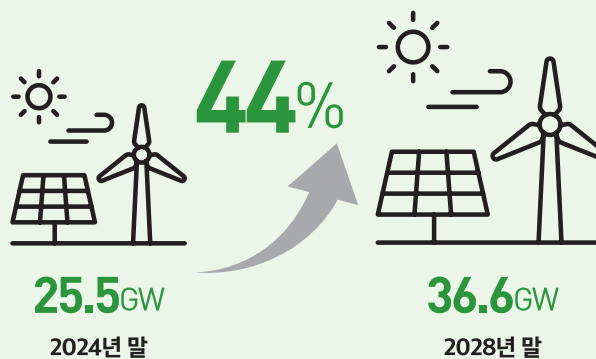
그 결과, 배전망 연계 분산에너지는 2024년 말 기준 약 25.5GW에서 2028년 말 약 36.6GW로 약 4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에는 주로 호남권을 중심으로 분산에너지가 보급되었으나, 향후에는 전국 단위로 보급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8년 말 기준 전체 발전원 중 약 20%가 배전망에 연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국가 에너지계획 및 전력망 계획 수립 시, 계획의 정확성과 계획 간 정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배전망 연계 분산에너지원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배전망 안정적 증설·운영계획

분산에너지 실태조사에 기반한 향후 배전망 증설계획을 수립한 결과, 분산에너지 수용을 위해 향후 5년간 약 2조 원의 투자(전기사용자 망을 포함할 경우 총 10.2조 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추진사업은 배전 공용망 보강(회선 신설 등)과 분산에너지 사업자 간 접속 공사이며, 한전은 이번 장기 계획을 기반으로 해당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분산에너지는 기존 대규모 발전원과 달리 대부분 인버터 기반으로 계통에 관성을 제공하지 못하며, 출력의 변동성 또한 커서 계통 안정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봄·가을 등 경부하 시기에는 과발전으로 인해 수급 불균형을 야기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분산에너지를 적기에 연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통 신뢰도와 전력품질을 유지하며 배전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배전망 연계 분산에너지 4년 후 증가 전망



한전은 정부와 협력하여 분산에너지 지능형 인프라(감시·제어장치)를 확대 설치하고, 개별 분산에너지 발전원의 출력을 실시간으로 조절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배전망 운영과 관련된 법·제도를 개선하여 배전망의 안정성과 신뢰도 확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이에 한전은 정부와 협력하여 분산에너지 지능형 인프라(감시·제어장치)를 확대 설치하고, 개별 분산에너지 발전원의 출력을 실시간으로 조절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력계통 운영기관인 전력거래소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발전량 계량·출력·시장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송배전 계통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양 기관 간 시스템을 연계하고자 한다. 아울러 배전망 운영과 관련된 법·제도를 개선하여 배전망의 안정성과 신뢰도 확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신기술·제도

배전망 증설·운영계획 외에도 민간 협력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2025년 말부터 국내 최초 지역 유연성 서비스(민간 ESS 등 활용)를 제주 지역에 시범 운영하고, 2027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차기 장기 배전계획 수립 시 지자체와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한전형 통합 배전계획 Framework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분산 전력망 기술 로드맵(~2035년)을 올해 하반기에 발표하고, DSO Alliance(한전-민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민간과 기술·정책 교류 확대를 통해 분산에너지 관련 산업을 주도하고자 한다.

제1차 장기 배전계획의 기대효과

이번 제1차 장기 배전계획은 법적 의무 이행뿐만 아니라 지역 분산형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배전망의 장기 전략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국내 최초로 장기 배전망 정책을 대외 공개함으로써 국민과 사업자의 공감대와 신뢰를 얻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새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적극 이행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향후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 지자체의 에너지계획 수립 시 배전망의 정보와 계획을 반영하여 국가 에너지 정책에 장기 배전계획이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달의 법률 이슈 이모저모

Text 임소현 법무실 법규송무부 차장



2025년 9월은 우리 회사에 뜻깊은 달이다. 바로 우리 회사가 추진하여 지난 2월 입법 완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전력망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달이기 때문이다. 그간 법적 제약 해소를 위해 기존 법령의 일부 조문을 개정 추진한 적은 많지만, 이번처럼 없던 법을 처음부터 제정 추진하여 입법에 성공한 건 이례적이고 기념비적인 일이다.

에너지 고속도로의 성공적 건설과 안정적 계통 연계를 위한 지렛대가 되어줄 전력망 특별법의 시행 첫 달인 2025년 9월! 부디 전력망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힘을 발휘하여 우리 회사의 전력망 확충이 앞으로 순탄하게 진행되길 바라본다.

이번 달 전력망 특별법을 포함해 회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우리 일상에 변화를 가져다줄 법률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의미 있는 2025년 9월을 맞이해 이달의 법률 이슈 이모저모를 살펴보자.

☞ 이달 시행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시행일: 2025. 9. 26.)

전력망 특별법은 그동안 경과지 지방자치단체의 비협조, 낮은 주민 수용성 등으로 인해 전력망 건설이 과도하게 지연·중단되는 문제를 타개하고자 ① **정부 주도의 전력망 확충**, ② **인·허가 절차 간소화**, ③ **보상 및 지원책 강화를 통한 주민 수용성의 제고**를 골자로 새롭게 만들어진 제정법이다.

이번 법 시행으로 ①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가 신설되어 전력망 설비 지정, 입지 선정, 인·허가 조정, 갈등 조정, 실시 계획의 승인 등 심의 및 의결을 담당한다.

또한 ② 이 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입지선정위원회 특례, 환경·재해영향평가 특례, 실시계획승인 의제 확대(전촉법 18개 → 특별법 35개) 등 각종 특례를 적용하여 건설사업 지연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③ 송전망 경과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기협의 장려금 강화, 선지매수청구권, 연금식 토지보상금 등 차별화된 보상·지원책을 마련하여 주민 수용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력망 특별법은 2023년 10월 처음 발의되어 「해상풍력보급촉진및산업육성예안특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예안특별법」과 함께 ‘에너지 3법’으로 묶여 오랜 기간 표류하다 우여곡절 끝에 2025년 2월 국회를 통과했다. 에너지계의 중요 키워드인 전력망, 원자력, 풍력을 다루는 에너지 3법 시행을 맞아해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KEMPUS e-러닝으로 ‘에너지 3법 제정 의의와 후속 과제’ 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니 수강 추천한다.

☞ 갓 개정 완료

「상법」 (공포일: 2025. 7. 22.)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몇 가지 변경 사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같은 달 22일 공포되었다. 개정 내용에 따라 시행일이 다른데, 대표적인 개정 사항들을 살펴보겠다.

① **[이사의 충실의무]** 기존 법에는 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이사가 소수 대주주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내려 다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수행 시 회사뿐만 아니라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이 조항은 공포 당일(7월 22일)부터 즉시 시행되었다.

② **[사외이사 독립성]**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했다. 또한 독립이사 의무 선임 비율을 이사 총수의 1/4에서 1/3로 확대했다. 이 조항은 1년 뒤인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된다.

③ **[전자주주총회 도입]** 기존 법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는 있지만, 전자주주총회(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해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주주총회) 개최에 대해서는 명시된 규정이 없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상장회사의 경우 전자주주총회를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상장회사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해 제도적 준비가 필요한 만큼 해당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④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출 시 의결권 제한]** 기존 법은 감사위원회 위원 상임·비상임 여부에 따라 의결권 행사 제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규율이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해임 안전과 관련해 최대주주는 항상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3% 초과 소유 여부를 판단하며, 상임·비상임 여부를 막론하고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게 되었다. 이 조항은 1년 뒤인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된다.

☞ 이달 시행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5. 9. 19.)

채무자가 개인워크아웃 등으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는 경우, 기존에는 금융 채무만 조정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개정법 시행으로 채납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 비금융 채무까지 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우리 회사도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이 되었으며, 채무조정 기준, 절차, 방법 등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통해 정하게 된다.

☞ 이달 시행

「예금자보호법」 (시행일: 2025. 9. 1.)

올 9월부터 예금보험금의 지급 한도액이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무려 24년 만의 개정으로,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성장과 예금자산의 증가를 고려하여 2001년 이후 처음으로 예금보호 한도가 2배 상향되었다. 원금보장형 상품의 경우 금융회사나 새마을금고 등이 파산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1억 원까지 지급 보장한다.

최근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은 차세대 태양전지에서 빛을 전기로 전환 시킬 수 있는 광활성층 소재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데, 페로브스카이트는 정확히 무엇이며,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Text 노용진 전력연구원 융복합연구소 페로브스카이트Pjt 선임연구원

유리창이 전기에너지를 생산한다?! 유리창호형 태양전지기술, 페로브스카이트

유리창이나 외장재가 태양광 발전장치가 되는 시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기술은 에너지 생산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과거에는 별도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유리창이나 외장재 자체가 태양광 발전 장치가 되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도심의 고층 건물 외벽이 전기를 생산하게 되면, 한 채의 빌딩이 곧 하나의 발전소로 기능할 수 있다. 또한 이 기술은 스마트폰, 드론, 차량, 웨어러블 기기 등 다양한 소형 전자기기에 유연하고 가벼운 전원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자립형 디지털 사회의 도래가 한층 앞당겨질 것이다.

유리창호형 페로브스카이트: 도심형 에너지원의 미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핵심 응용 분야 중 하나는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이다. 특히 유리창호형 태양전지는 BIPV 기술을 활용해 도심 고층 건물의 창문에 직접 적용할 수 있으며, 추가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투명한 특성 덕분에 기존 유리창과 외관상 큰 차이가 없어 건축물의 심미성을 해치지 않으며, 도심 내 자가 발전을 통해 건물의 에너지 자립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얇은 두께로 태양광 흡수해 태양전지에 활용

페로브스카이트는 입방 팔면체 결정구조의 ABX_3 형태를 가지는 물질군을 의미한다. 최근 다양한 유기 소재를 이용한 유기 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 물질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특히 메틸암모늄납요오드($MAPbI_3$) 또는 포름아미디늄납요오드($FAPbI_3$) 같은 화합물이 태양전지 재료로서 주목받고 있다.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은 태양광을 흡수하는 능

력이 탁월할 뿐 아니라, 우수한 전하 이동 특성을 가지고 있어 얇은 두께만으로도 태양전지에 광활성층으로 활용되었을 때,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투명한 필름처럼 창문 위에 구현 가능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높은 변환 효율이다. 2009년 약 3.8%에 불과하던 광전변환 효율이 2025년 현재 25% 이상으로 향상되었다. 특히 실리콘 태양전지와 결합한 ‘페로브스카이트/실리콘 탠덤 태양전지’는 실험실에서 34%를 넘는 효율을 구현한 바 있다.

둘째, 낮은 제조 비용이다. 기존 실리콘 기반 공정과 달리 저온에서 인쇄 기술을 활용해 제작할 수 있어 대량생산이 용이하며, 제조 단가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셋째, 유연성과 투명성이다. 필름처럼 유연한 기판 위에도 제작이 가능하고, 얇고 반투명하게 구현할 수 있어 건물 창문, 자동차 유리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중·미, 유럽권에선 상용화 제품개발 본격화

전 세계적으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기술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 미국, 유럽에서는 이미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상용화 제품 개발이 본격화되었으며,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탠덤 셀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연구와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화솔루

션 큐셀은 페로브스카이트/실리콘 탠덤 태양전지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최근 해당 탠덤 모듈이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와 미국안전시험기관(UL) 인증을 획득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KEPRI)은 대면적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모듈의 효율을 19.1%까지 향상시키는 데 성공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대면적 기술을 바탕으로 유리창호형 태양전지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국내외 기업들의 기술 개발 성과는 향후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양산 및 상용화를 위한 견고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 할 수 있다.

한전 전력연구원, 페로브스카이트 상용화 기술 확보에 박차

국내 연구기관과 기업들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상용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핵심 과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우선 장기 안정성 확보가 관건이다. 현재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습기, 열, 자외선에 취약해 성능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봉지화(Encapsulation) 기술과 내구성이 높은 소재 개발 등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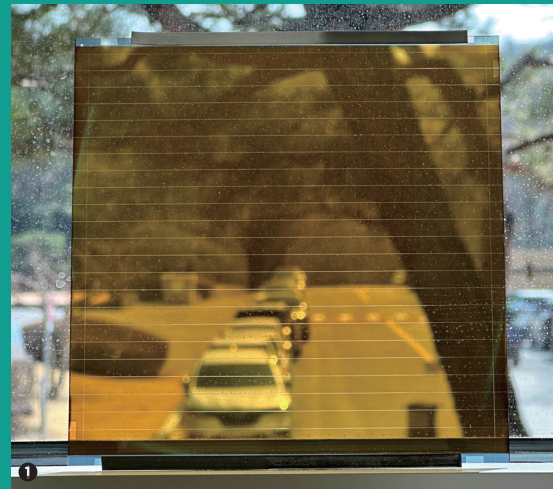
또 대면적화 및 양산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상용화를 위해서는 잉크젯 프린팅, 롤투롤(Roll-to-Roll) 등 용액공정을 활용한 고효율 대면적 제조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다. 연구실 단위의 소형 셀을 산업 규모로 확장하는 것이 관건이다.

제품 다양화와 상업화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산업체 주도의 기술 개발을 통해 창호형, 휴대형, 건물 일체형 등 다양한 형태의 상용 제품을 제작하고, 실증 사업을 통해 성능과 경제성을 검증해야 한다.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KEPRI) 역시 유리창호형 태양전지 개발에 주력하며, 안정성 강화, 대면적화, 저가 공정 등 상용화를 위한 기반 기술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결론적으로, 유리창호형 태양전지 기술은 건물 밀집 지역에서 전력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고, 현재의 지역 간 에너지 불균형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도심형 신재생에너지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는 우리가 사는 건물의 창문 하나하나가 전기를 생산하는 스마트 에너지 도시가 현실이 될 것이다.

Perovskite Solar Cell



① 반투명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15x15cm)
② 200W 유리창호형 태양전지 시제품



천년고도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비타민 그 자체, 경주시사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개최되는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에 한 치의 오차 없이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경주시사는 벌써부터 만반의 체비를 하고 있다. 그 현장에 선물을 배달했다.

Text 장은경 Photo 배성우

경주 시내의 야트막하고 고만고만한 건물 사이에서 고풍스러운 한옥 스타일의 건물이 유독 눈에 띈다. 건물의 주인장은 다름 아닌 한전 경주시사. 기와지붕의 우아한 곡선미가 흐르는 스카이라인과 처마, 고궁의 돌담에서 불법한 문양이 새겨진 외벽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건물 주변에는 울창한 소나무가 둘러서서 그 운치를 더한다. 천년고도에 불을 밝히는 경주시사답게 외관에서부터 고풍스러운 운치로 방문객을 맞이한다.

1922년 경주전기(주)에서 시작된 역사

경주시사의 역사는 무려 19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주전기(주)가 설립되어 경주시 최초로 전기공급을 시작했으며, 1963년 경주영업소, 1982년 경주지점을 거쳐 현재의 대구본부 산하 경주시사가 되었다. 웅장한 한옥 사옥은 1989년 건립되었으나 2016년에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으로 소실되어 리모델링과 내진보강공사를 시행해 더 기품 있는 모습으로 거듭났다. 그리고 2025년 경주시사는 또 하나의 역사적인 스토리를 만들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정상회의체인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APEC 정상회의장에 무결점 전력공급을 위하여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보다 완벽한 전력지원을 위해 경주시사는 지난해 6월 정부의 APEC 정상회의 경주 개최 발표 직후부터 선제적으로 '경주시사 전력 확보 실무단'을 발족하여 주요 행사장의 전력공급을 차질없이 준비해왔다. 전력확보를 해야 하는 16개 시설 중 정상회의가 열리는 화백컨벤션센터(HICO), 정상숙소와 글로벌 CEO 행사장에 대해서도 4중 전원을 구축하여 7월 말까지 무정전 공급체계를 완비했다. 또한 행사장 전력공급설비인 9개 배전선로, 1,309개에 특별진단을 이미

완료했고, 전력설비에 대한 미관정비는 8월까지 완료했다. D-30일부터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경주시사에 차세대 배전망 통합운영플랫폼인 ADMS를 활용한 전력확보 종합상황본부를 가동해 전력확보 관련 상황을 총괄 지휘하게 되며, 이와 별도로 전력공급 특별기동대를 구성해 행사장 공급선로를 중심으로 최첨단 진단장비 동원, 24시간 실시간 점검과 동시에 패트롤을 시행하고 있다. 행사 기간 중에는 인력과 장비를 현장에 배치하여 비상시에 대비하며 무결점 전력공급을 위해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처럼 경주시사는 전력 확보 종합상황본부와 협력하여 정상회의장, 숙소 등 주요 행사장에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전력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단 한 건의 설비사고,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무결점 전력공급을 위해 뛰고 있다.

‘지붕 없는 박물관’ 경주에 불 밝히다

경주는 신라시대의 수도로서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불릴 만큼 석굴암, 불국사 등 천년 전 고대도시의 문화를 보여주는 유적들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기에 인류의 보편적 문화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이처럼 유서 깊은 경주는 수학여행으로도 한번씩 대부분 가봤을 법한 대표 관광도시일 뿐 아니라 현대자동차, POSCO와 인접해 자동차 부품, 금속 업체가 산업단지를 구성하고 있다.

경주 전역을 관할하는 한전 경주시사는 관할구역이 넓고, 대형 태풍이 잦아 각별한 설비관리가 필요하다. 이처럼 위낙에도 업무량이 많은 편이지만 APEC 정상회의를 치르면서 요즘 경주시사 직원들은 체감상 두 배 이상의 업무 강도를 감당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적인 행사에 성공적인 전력 확보로 국격 향상의 밑거름이 된다는 자부심을 한 치의 오차 없는 완벽한 전력공급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분투하고 있다.



“경주시사는 전력 확보 종합상황본부와 협력하여 정상회의장, 숙소 등 주요 행사장에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전력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단 한 건의 설비사고,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무결점 전력공급을 위해 뛰고 있다.”

비타민이 비타민을 위해 비타민을 챙기다

수고하는 경주시사 사우들을 위해 고객지원부 김대용 차장이 『월간 KEPCO』에 영양제 선물을 신청했다. 경주시사는 신입사원들의 비중이 40%가량이나 되며 대부분 타지에서 발령받아와 사택에 거주하며 고생하고 있다고 안쓰러움을 내비친다. 이들에게 각종 비타민과 밀크시슬 등이 들어있다는 종합영양제를 비롯해 유산균, 콜라겐, 고용량 비타민C 등 피로를 날려주고, 면역력을 회복시켜 줄 아무지고 든든한 선물이 배달됐다.

서로를 챙겨주는 알뜰한 마음을 확인하며 언박싱을 하는 경주시사 직원들에게선 이미 피로는 사라지고 활력이 가득해 보였다. 서로에게 활력을 충전한 경주시사 사우들은 ‘APEC 국제회의 성공적 전력지원’이라는 만추의 결실을 얻기 위해 다시 천년고도의 찬란한 햇살 속으로 향했다.



고립을 넘어 소통, 그래서 ‘어쩌면 해피엔딩’

인간은 유한한 존재다. 결국은 필멸한다. 그런데 정해진 엔딩을 알면서도 우리는 왜 누군가를 만나고 이야기하고 마음을 나누려 할까.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은 필멸하는 우리에게 소통의 용기가 왜 필요 한가를 묻는 작품이다.

Text 정덕현 칼럼니스트 출처 네이버공연

<어쩌면 해피엔딩>, 단절된 세상에 폐기된 로봇들의 소통

“사랑이란 멈추려 해봐도 바보 같이 한 사람만 내내 떠올리게 되는 것” 아마도 많은 이들이 전미도와 정문성이 부르는 ‘사랑이란’이라는 노래로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을 떠올리지 않을까. 영상으로도 공개된 이 장면에서 올리버 역할의 정문성과 클레어 역할의 전미도는 어딘가 빠격 대는 모습으로(?) 노래를 부른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은 인간이 아니고 인간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로봇 ‘헬퍼봇’이다. 로봇이 ‘사랑이란’ 하고 노래를 부르는 이 상황은 <어쩌면 해피엔딩>이라는 뮤지컬이 현 시대에 던지는 역설적인 화두처럼 보인다.

인공지능이 갈수록 일상 속으로 스며들고, 그래서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보다는 스마트폰과 대화를 주고받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현재가 아닌가. 저마다의 고립된 세상에서 우리는 가끔 인공지능이 사람보다도 더 마음을 잘 알아채고 때론 위로를 주기도 한다고 느낀다. 사랑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복잡한 감정일 텐데, 정작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보다 더 절절하게 느껴지는 로봇들이 하는 사랑 이야기라니. 이보다 우리들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역설이 있을까.

때는 2060년대의 서울 어느 곳. 인간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남성 ‘헬퍼봇’ 올리버는 구형이 되어 버려진 채 홀로 외롭게 살아간다. 구형인지라 교체 부품 생산이 중단되어 이제 고장 나면 끝나게 될 운명이지만, 그는 일상의 루틴들을 똑같이 반복한다. 화분을 돌보고 정기적으로 재즈 월간지를 받으며, 주인인 제임스가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인 여성 헬퍼봇 클레어가 그의 평범한 일상을 깨고 들어온다. 충전기가 고장 났다며 도움을 요청하다 멈춰버린 것. 올리버는 마지못해 자신의 충전기를 빌려주지만, 최신 헬퍼봇보다 구형인 자신이 훨씬 뛰어난 내구성을 갖고 있다고 자랑을 늘어놓아 클레어의 기분을 상하게 만든다. 내구성이 뛰어나지만 사회적 능력이 부족한 초기 헬퍼봇

올리버는 최신 기종인 클레어를 은근히 질투하고, 많은 기능을 갖고 있지만 배터리 소모가 심한 최신 헬퍼봇 클레어는 그런 올리버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티격태격하지만 차츰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해 조금씩 소통하며 마음을 주고받기 시작한다. 클레어를 위해 올리버는 자신의 충전기 어댑터를 개조해 걸쇠를 만들어 주는데, 그건 헬퍼봇으로서 누군가를 돕는 기능적 행위를 넘어, 상대방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충족시켜 주려는 마음의 표현이다.

고립되어 폐기될 운명의 로봇들이 조금씩 변화하고 서로에 대한 감정이 생기고 사랑하게 되는 건 결국 서로 닫고 있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소통’으로부터 시작한다. 클레어가 올리버의 집 문을 열지 않았다면, 올리버가 위기에 처한 클레어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또 서로 다른 두 존재들이 티격태격하면서도 조금씩 마음을 맞춰가지 않았다면 이들에게 사랑 같은 ‘기적’이 결코 생겨날 수 없었을 게다. 그리고 이걸 완벽하게 나만의 세계 안에 고립되어 똑같은 루틴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다. 문을 열고 두 존재가 부딪치는 소통의 첫걸음을 내딛지 않고서는 기적은 생기지 않는다.

고립되어 폐기될 운명의 로봇들이
조금씩 변화하고 서로에 대한
감정이 생기고 사랑하게 되는 건
결국 서로 닫고 있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소통’으로부터 시작한다.



소극장 뮤지컬이 세상 바깥으로 나가 마주한 기적들

기적은 또 다른 기적으로 이어지는 걸까. 버려진 로봇들이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기적 같은 이야기를 누군가와 나누고 싶었던 이 뮤지컬의 박천후 작가는 그와 함께 작업을 해왔던 윌 애런슨에게 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작사와 작곡을 더해 뮤지컬을 완성했다. 그 시작은 처음 헬퍼봇들이 만나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던 외판곳 작은 아파트처럼 소박했다. 작은 소극장에서 조출하게 올려진 뮤지컬이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그렇게 만난 헬퍼봇들이, 올리버는 주인인 제임스를 만나기 위해, 클레어는 반딧불을 찾기 위해, 넓은 세상 밖으로 나갔던 것처럼, <어쩌면 해피엔딩>도 위대한 여정을 시작했다.

2016년 그 소박한 첫발을 디딘 이 뮤지컬은 뜨거운 관객들의 호응과 호평에 힘입어 앙코르 공연을 계속 이어갔고, 2020년 애틀랜타 얼라이언스 극장에서 영어로 초연을 가진 후 2024년 브로드웨이로 진출했다. 평균 90%를 훌쩍 넘기는 높은 객석 점유율과 만장일치에 가까운 좋은 평가를 받은 이 뮤지컬은 놀랍게도 2025년 제78회 토니상 6관왕의 주인공이 되었다. 말 그대로 작은 공간에서 시작한 사랑과 소통의 이야기가 세상 밖으로 퍼져나가 전 세계 뮤지컬 최고의 위치에 오르는 기적 같은 결과를 낸 것이다.

물론 이 브로드웨이에서의 성과는 결코 쉽게 얻어진 게 아니었다. 소품 공급이 지연되어 첫 공연이 한 달간 연기되어 취소된 공연티켓을 환불해 주기도 했다. 프리뷰 공연에서도 티켓 판매 실적은 저조했고, 이 낯선 창작 뮤지컬을 소문내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넘어선 건 작품이 가진 진정성의 힘이었다. 그 진심은 관객들과 평론가들의 마음에 닿았고 찬사가 이어지면서 관객들이 몰리기 시작했다. <어쩌면



해피엔딩>의 브로드웨이 제작자인 제프리 리처즈는 뉴욕타임스에 이 작품을 ‘21세기 44번가의 기적’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건 이 뮤지컬이 공연된 뉴욕 벨라스코 극장이 과거 폐막 위기를 겪던 연극 ‘올 더 웨이 홈(All the way home)’의 흥행 성공으로 ‘44번가의 기적’이라 불렸던 데서 따온 표현이었다. 그만큼 쉽지 않은 공연의 여정이었지만, 그 기적 같은 일이 가능했던 건 세상을 향해 진심을 꺼내 놓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자 했던 소통의 힘이었다.

필멸하기에 소통해야 한다는 역설

언젠가는 사라질 운명을 타고나는 우리들이 누군가와 이토록 마음을 나누고 소통하려 하는 건 어찌 보면 무의미한 일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건 어쩌면 필멸하기 때문에 소통하려 한다는 역설일 수 있다. <어쩌면 해피엔딩>에서는 이것을 기억의 문제로 그려낸다. 제주도까지 찾아갔으나 결국 제임스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올리버는 아쉬워하면서도 그가 죽기 전 자신에게 LP를 남겼다는 사실에 기뻐한다. 그건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 기억하고 있었다는 뜻이고 제임스가 자신을 친구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죽음은 제임스와 올리버를 갈라놓았지만 그들은 함께 소통했던 기억으로 연결되어 있다. 삶에 있어 누군가와 소통하는 일은 그래서 그 필멸의 존재들이 저마다 의미를 갖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것은 여행에서 돌아온 올리버와 클레어가 마주하게 되는 죽음 앞에서 이들이 보여주는 선택을 통해서도 그려진다. 올리버보다 먼저 망가질 걸 알고 있는 클레어는 그를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아 사랑을 끝내자고 하지만 올리버는 클레어가 괜찮다고 할 때까지 그녀를 사랑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수리를 해도 어쩔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게 되자 둘은 기억을 지우기로 한다. 그렇게 기억을 지운 후, 어느 때와 다를 바 없는 일상이 펼쳐진다. 클레어는 충전기를 빌려달라며 올리버의 집을 찾아오고 올리버는 처음에는 못 들은 척하다가 결국 클레어를 집에 들어 충전하게 한다. 똑같은 일상처럼 보이지만, 어딘가 올리버는 클레어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지우지 않았거나 기억이 되살아났거나. 그래서 새드엔딩처럼 보이는 이 이야기는 ‘어쩌면’ 해피엔딩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 ‘필멸’이라는 정해진 운명은 새드엔딩일 수 있으나, 행복을 찾아 누군가의 문을 두드리는 그 아름다운 소통의 몸짓들은 우리가 기억하는 한 해피엔딩일 수 있으니.

Communication

빛과 곡선, 그리고 소통의 무대 트라이보울

마치 미래에서 날아온 우주선이 물 위에 살포시 내려앉은 듯한 트라이보울. 세 개의 그릇이 나란히 놓인 이 건축물은 고정관념을 거슬러 오르는 곡선의 시(詩)로, 도시와 사람 사이에 섬세한 소통의 울림을 더한다. 낮에는 조형의 아름다움으로, 밤에는 물빛과 별빛이 함께 어우러진 빛의 감성으로, 이곳은 예술과 소통이 만나는 공간으로 피어난다.

Text 최행좌 Photo 황지현, 인천문화재단

Tri-Bowl

트라이보울 전경

고요한 물 위에 피어난 곡선의 아름다움, 빛과 그림자의 조화로 인천의 밤을 수놓는다.

인천 송도의 곡선, 도시에 머문 예술

인천 송도국제도시 센트럴파크역 3번 출구로 나오면 기묘한 형태의 조형물을 발견할 수 있다. 마치 세 개의 그릇이 물 위에 떠 있는 듯한 ‘트라이보울(Tri-Bowl)’이다. ‘세 개’를 뜻하는 트리플(Triple)과 ‘그릇’을 뜻하는 볼(Bowl)의 합성어로, 하늘과 바다, 땅이 어우러진 인천의 정체성과 송도·청라·영종을 상징하는 복합문화공간이다. 마치 수면 위에 핀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이곳은 도시에 빛나는 포인트가 된다.

2010년 인천도시축전을 기념해 탄생한 이곳은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도시와 사람, 자연을 잇는 감성의 매개체다. 곡선으로 이루어진 외관은 오르고, 건너고, 돌아보는 유기적인 흐름으로 공간을 구성했고, 내부에는 최대 3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극장 형태의 공연장과 다목적 공간이 어우러져 기능과 감성을 함께 품었다.

해가 저물면 트라이보울은 또 다른 모습을 드러낸다. 건물 곳곳에 설치된 LED 조명이 은은하게 빛난다. 그 빛은 수면 위에 반사되어 파문처럼 번지고, 공간 전체를 한 폭의 그림처럼 물들인다.



트라이보울 이용 안내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0

운영시간 (전시) 12:00~17:30

(공연) 프로그램별 상이

휴관 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문의 032-832-7996



바로가기

곡선이 품은 공간, 곡선이 만든 감성

트라이보울의 핵심은 ‘곡선’이다. 직선을 거부하고, 선형의 질서를 부드럽게 뒤집은 곡선의 미학은 ‘역셀(易shell)’ 구조에서 비롯된다. 역셀 구조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넓어지는 형태로, 거꾸로 세운 원뿔처럼 어느 각도에서 보아도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입체적인 조형미를 완성한다.

건물 아래의 빈 공간은 바람이 스치는 길이 되고, 자연스러운 환기를 돕는다. 내부로 들어서면 외부 곡선이 그대로 이어진 벽과 나선형 동선이 방문객을 부드럽게 감싼다. 등고선을 따라 걸듯 천천히 오르면 공연장을 지나 3층에 닿고, 다시 2층으로 이어진다.

전시 공간은 바닥 일부를 비우고 브리지를 연결해 위와 아래가 자연스럽게 소통하도록 설계됐다. 투명한 바닥재는 공간의 경계를 허물고, 곡선의 흐름은 건물 전체에 감성적인 숨결을 불어넣는다. 이곳에서는 곡선이 건축의 언어가 되고, 공간이 곧 이야기가 된다.

소통이 머무는 오늘의 예술 무대

복합문화공간인 트라이보울에서는 공연, 전시, 축제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이 펼쳐진다. 그중 ‘트라이보울 시리즈’는 이곳을 대표하는 기획 공연이다. 매년 하나의 테마를 정해 클래식, 국악, 대중음악, 무용 등 장르를 넘나드는 공연으로 관객과 소통하고 있다. 올해의 키워드는 ‘다중주파’로 서로 다른 예술 장르와 감각이 충돌하고 중첩되며 새로운 감성을 자극하는 실험적 공연 시리즈를 총 6회 선보인다.

‘트라이보울 기획전시’도 빼놓을 수 없다. 기둥 없이 자작나무로 둘러싸인 실내와 미래적인 외관을 활용한 전시 공간에서는 매번 다른 주제와 작품이 펼쳐진다. 관람객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동선과 구성을 설계해 예술 감상의 문턱을 낮췄다. 현재 3층 전시장에서는 《인천 청년 작가전 2025-깨어 있는 자들의 꿈》이 진행 중이다. 9월 13일부터 14일까지는 ‘송도 트라이보울 재즈 페스티벌’이 이곳을 무대로 열린다.

트라이보울은 마치 하나의 예술 속으로 걸어 들어온 듯, 깊은 올림과 소통의 온기를 전하는 공간이다. 이 아름다운 그릇은, 인천이라는 도시의 심장 가까이에서 시대와 대화를 나누고, 빛과 마음을 주고받으며, 사람들의 기억을 차곡차곡 담아내고 있다.

공연장

곡선으로 이어진 공연장은 무대와 객석의 거리가 가까워 관객이 예술의 생동감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다.



《인천 청년 작가전 2025-깨어 있는 자들의 꿈》

2025년 트라이보울 기획전시로, 인천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작가 13명이 참여해 회화, 설치, 미디어 등 다양한 작품으로 채워지는 전시이다.

빛과 색으로 떠나는 시간 여행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선명하게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다. ‘너에게 난, 나에게 난’이라는 노래를 들으면, 두 청춘이 웃으며 빗속을 뛰어가 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말이다. 지나간 시간을 탐험하듯 우리를 추억으로 안내하는 9월의 전시를 소개한다.

Text 최설화 Photo 황지현, 한국화랑협회, (주)미디어아트



김창열, SA07022, Acrylic and Oil on canvas, 72.7x116.8cm, 2006

예술로 번져가는 공진의 시간

올해로 24화째를 맞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아트 페어 《Kiaf SEOUL 2025》가 9월 3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펼쳐진다. 올해의 주제는 ‘공진(Resonance)’. 서로 다른 파동이 만나 새로운 울림을 만들어내듯, 예술의 회복력과 공명의 힘을 통해 미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한다. 20여 개국 175개 갤러리가 참여해 회화, 조각, 설치, 디지털 미디어 등 경계를 허무는 현대 미술의 다채로운 풍경이 한자리에서 펼쳐진다. 156곳의 국내외 갤러리가 모이는 메인 섹션 ‘Kiaf GALLERIES’에서는 현대미술의 다양한 흐름과 한국 미술의 정체성, 그리고 국제적 확장 가능성을 동시에 엿볼 수 있다. 샘타화랑은 단색화의 거장 박서보의 최근 묘법 시리즈를 선보이며, 물성과 동양적 사유가 맞닿은 고요하면서도 깊이 있는 울림을 전한다. 표갤러리는 김창열의 물방울 작품을 선보이며, 존재와 사라짐, 그 경계에서 맞히는 투명한 사유의 물방울을 관람객의 마음에 떨어뜨린다.

가나아트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설치 작가 치하루 시오타(Chiharu Shiota)의 실 작업을 소개한다. 기억과 관계, 존재의 흔적을 얹은 실로 엮어낸 공간은 마치 보이지 않는 마음의 파동을 가시화한 듯, 이번 《Kiaf SEOUL 2025》의 주제 ‘공진’과 긴밀하게 호응한다. 국제갤러리는 스위스 출신 작가 우고 론디노네(Ugo Rondinone)의 작품을 통해 색과 형태가 빚어내는 심리적 몰입과 정서적 울림을 이끌어낸다.



André Masson, Femme surprise, Oil on canvas, 100x84.8cm, 1932

박서보에서 우고 론디노네까지 국내 최대 미술 축제

《Kiaf SEOUL 2025》

경계를 넘어, 세계와 공명하다

해외 갤러리 출품작 역시 《Kiaf SEOUL 2025》를 풍성하게 수놓는다. 미국 뉴욕의 순다람 타고르 갤러리(Sundaram Tagore Gallery)는 일본 작가 히로시 센주(Hiroshi Senju)의 작품을 소개한다. 전통 회화 기법과 현대적 색채가 어우러진 그의 작품은 자연과 정신성의 맞닿은 지점을 탐색하며, 마치 빛과 물이 만나는 순간의 찰나를 담아낸 듯 잔잔한 파동을 남긴다.

아트 오브 더 월드 갤러리(Art of the World Gallery)는 작년에 이어 콜롬비아 출신 거장 페르난도 보테로(Fernando Botero Angulo)의 작품을 선보인다. 유머러스하면서도 풍성한 인체 묘사는 인간의 감정과 관계를 따뜻하게 풀어내 관람객의 마음에 미소와 여운을 동시에 남긴다. 독일의 디 갤러리(DIE Galerie)는 시간의 거대



장소 코엑스(Coex) 1층 홀 A·B, 그랜드볼룸
기간 9월 3일~7일
이용료 80,000원(선택한 날짜, 시간에만 한하여 입장 가능) / 40,000원(9월 7일만 입장 가능)
홈페이지 <https://kiaf.org>



Jeffroy Python, Carmina Paginata IX, Acrylic and mixed media on blueback paper, 104 x 143 cm, 2025

한 강 위에서 예술의 대화를 이어간다. 프랑스 출신의 초현실주의 작가 앙드레 마송(Andre Aime Rene Masson)의 대표작부터 르네상스 화가 팔마 일 베키오(Palma il Vecchio)의 회화, 그리고 현대 작품에 이르기까지. 500년에 걸친 작품들이 한 공간에 모여, 시대를 건너 서로에게 울림을 주고받으며 영원한 대화를 이어간다.

영화 같은 풍경을 선물하다

가끔 사진만으로도 여행하는 듯한 기분을 느낄 때가 있다. 알렉스 키토의 작품이 그렇다. 미국 캔자스 출신의 그는 일상에 지칠 때마다 카메라를 들고 길을 나섰다, 그렇게 포착한 영화 같은 순간들이 이번 전시에 펼쳐진다. 전시는 그가 영감을 받았던 네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콜로라도의 사계'는 작가의 고향 콜로라도의 풍경을 담았다. 험준하면서도 목가적인 산악지대의 계절별 변화가 인상적이다. 두 번째, '고요한 빛의 축제'는 하루의 시작과 끝, 일출과 일몰의 찰나를 담아냈다. 하늘과 땅, 태양과 달이 어우러진 자연의 조화가 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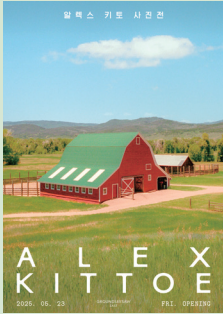
사로잡는다. 세 번째, '세상에 없는 곳'은 클로드 모네와 에드워드 호퍼, 그리고 영화감독 웨스 앤더슨의 작품 세계에서 영감을 받아 디지털 콜라주로 구현한 상상의 풍경이다. 네 번째, '삶의 작은 순간들'은 여행지에서 우연히 마주한 장면들을 포착했다. 미국 서부와 알래스카, 아이슬란드 등 약 37개국의 풍경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그의 사진은 파스텔 빛 새벽부터 붉게 물든 노을까지, 하늘이라는 거대한 캔버스를 전시장에 옮겨 놓은 듯한 감동을 선사한다. 한 공간이 가지는 다양성을 보여준다.



잠시 멈춰서, 풍경을 담고 꿈을 꾸다

《알렉스 키토 사진전》

Out West (Steamboat Springs, Colorado, USA, 2024) ©ALEX KITTOE



장소 그라운드시소 이스트
기간 5월 23일~9월 28일
관람 월~금 10:00~19:00
(입장마감 18:00)
이용료 15,000원
문의 070-4141-6252



Cabins by The Coast(Mjoeyri Cottages, ICELAND, 2023) ©ALEX KITTOE

삶의 소중한 심표를 경험하다

알렉스 키토의 사진은 시각을 넘어, 소리와 향이 어우러진 예술적 몰입을 이끈다. 전시장은 평온함과 긴장감이 공존하며, 관람객을 자연스럽게 그의 렌즈 속 세계로 이끈다. 나무판으로 만든 임시 벽은 콜로라도의 대지 위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노란빛 조명은 잔디 위에 누운 듯한 따뜻함을 전한다. 작품과 어울리는 향과 촬영 중 녹음된 소리는 관람객의 오감을 자극하며, 마치 작가가 된 듯한 감각의 전이를 가능케 한다. 그는 단순히 풍경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직접 찍은 사진을 오리고 붙이는 콜라주 기법으로 재편집하며, 익숙한 장면을 새롭게 바라보는 실험을 이어간다. 안정된 직업을 내려놓고 사진에 대한 열정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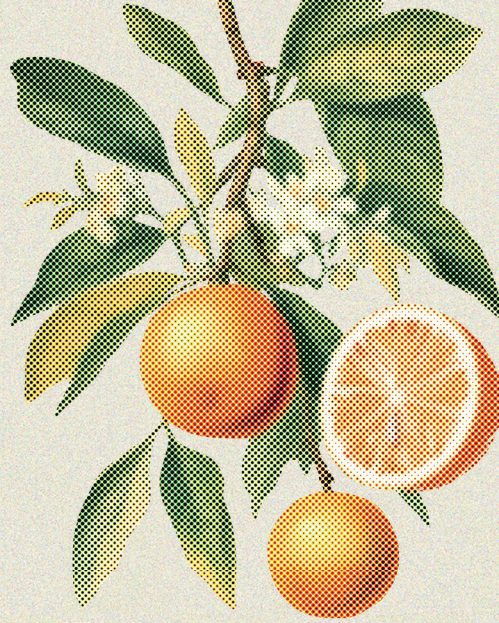
나로 새로운 꿈에 도전한 알렉스 키토. 그는 계획에 없는 우연한 만남을 이어간다. 그의 여정은 꿈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묵직한 용기와 깊은 영감을 전한다.



최근 한 철에만 가능한, 시간의 희소성을 좇는 소비 현상이 두드러진다. 짧고 소중한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는 열망이 만들어낸 트렌드가 바로 '제철코어'다. 제철을 행기는 행위가 현재를 가장 충실하게 만끽하는 세련된 취향이 되고 있다.

Text 이혜원 트렌드코리아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연구위원

“지금 아니면 안 돼!” 순간을 사는 우리들의 방식, ‘제철코어’



SEASONAL CORE



제철코어, 좋은 때를 찾는 취향

‘제철코어’란 ‘알맞은 시절’을 뜻하는 순우리말 ‘제철’에, 패션이나 라이프스타일에서 특정 스타일의 핵심을 지칭하는 접미사 ‘코어(Core)’가 결합된 신조어다. ‘코어’는 단순히 하나의 아이템이 아닌, 그것을 중심으로 한 미학적 태도와 삶의 방식을 포괄하는 용어다. 평범함(Normal)을 추구하는 ‘놈코어(Normcore)’나, 아웃도어용 간식(Gorp)에서 이름을 따 기능성 의류를 일상복처럼 입는 ‘고프코어(Gorpcore)’가 좋은 예다.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5월 말, 하우스에서 조심스럽게 익어간 털복숭이가 시장에 모습을 드러내며 복숭아의 계절은 막을 올린다. 이때부터 복숭아의 수확 시기는 주 단위로 촘촘하게 쪼개진다. 6월 중순이 되면 길은 천도, 속은 백도인 ‘신비복숭아’가 단 2~3주의 짧은 허락 끝에 홀연히 사라진다. SNS에서 본 복숭아를 올해는 꼭 맛보리라 다짐하지만, 며칠만 머뭇거리려도 금세 철이 지나가 버린다. 그리고 독특한 모양으로 많은 이의 시선과 입맛을 사로잡는 유럽산 ‘납작복숭아’의 때가 어느새 시작된다. 7월에 들어서면 백도 계열의 ‘유미’와 황도 계열의 ‘수황’ 같은 조생종 품종들이 릴레이를 펼치고, 7월 하순에는 과즙이 풍부한 ‘아까즈끼’가, 8월 초에는 ‘애천중도’와 ‘천중도백도’가 여름의 절정을 알린다. 이처럼 여름 한 철에도 품종별로 미묘하게 다른 맛과 향을 지닌 복숭아들이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주간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철마다 바뀌는 품종의 연쇄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이벤트다. ‘지금’이 아니면 맛볼 수 없는 찰나의 가치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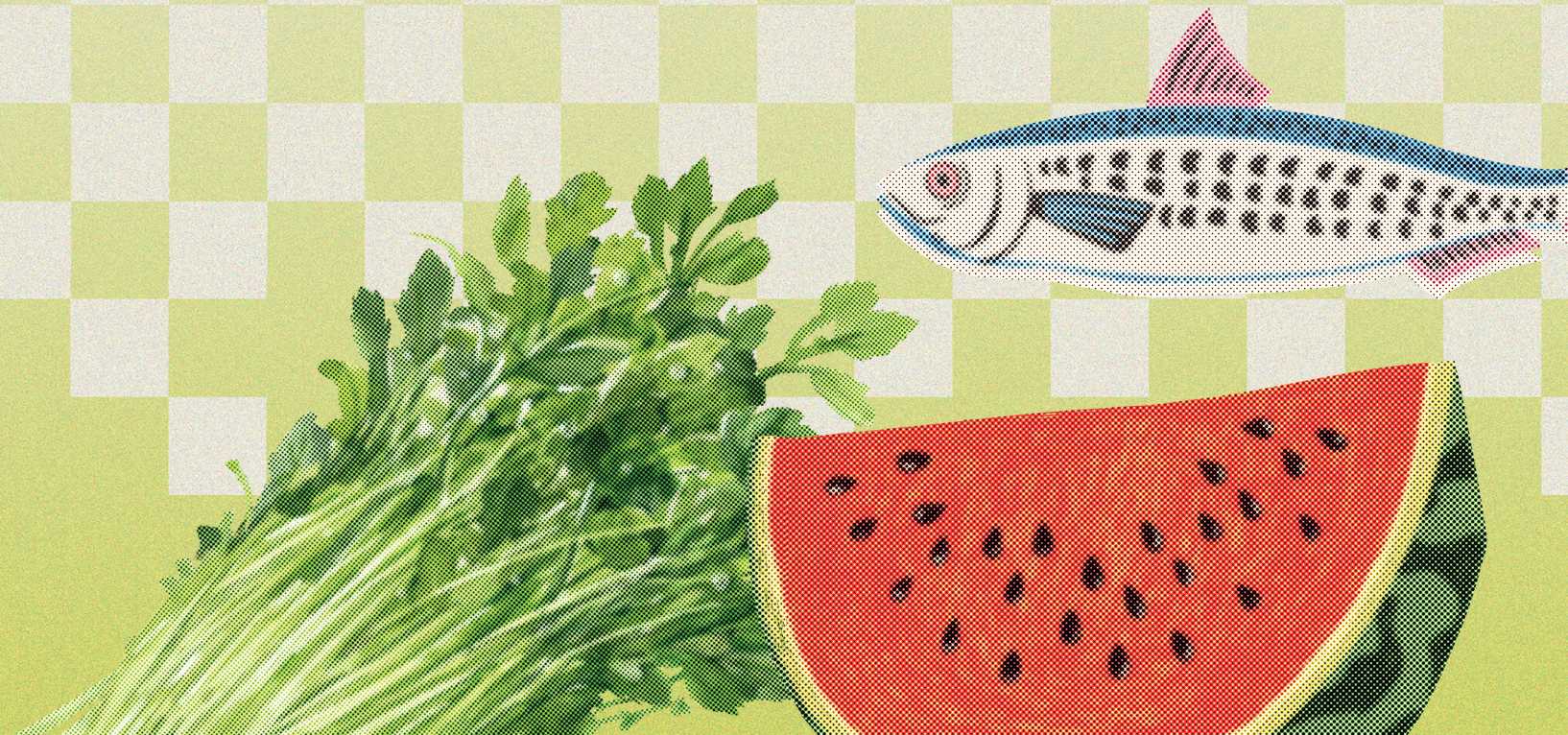
제철코어는 단순히 제철 음식을 챙겨 먹는 식도락을 넘어, 특정 ‘때’에만 허락된 음식, 활동, 콘텐츠, 이벤트 등 고유한 경험과 감성을 의식적으로

찾아 누리는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아우른다. 봄의 미나리, 여름의 초당옥수수, 가을의 전어, 겨울의 대방어처럼 ‘지금’이 아니면 즐길 수 없는 것들의 가치가 재조명되는 현상이다. 이는 제철을 행기는 행위가 더는 낡고 고루한 것이 아닌, 현재를 충실히 만끽하는 가장 세련되고 ‘힙’한 취향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 특히 기후 위기나 기술 발전으로 사계절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시대에, 역설적으로 사라져가는 계절감을 의식적으로 붙잡고 복원하려는 움직임이기도 하다. 결국 제철코어는 계절의 리듬에 맞춰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경험하고 큐레이션하는’ 능동적인 라이프스타일 그 자체를 뜻한다.

진짜의 맛을 찾아서, 제철 음식

제철코어의 가장 대표적인 영역은 단연 음식, 그중에서도 과일이다. 농업 기술의 발달로 대부분의 과일을 사시사철 맛볼 수 있게 된 지도 오래다. 그럼에도 소비자들은 자연의 순리대로 익은 ‘진짜 제철’의 맛에 더욱 열광한다.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도다리썩국을 먹고, 아삭하고 수분감 넘치는 초당옥수수로 여름이 시작되는 기분을 느끼고, 가을에는 전어구이로 찬바람을 맞이하는 식이다.

제철에 대한 열기는 프리미엄 경험 소비로도 이어진다. 겨울과 봄 사이, 호텔에서 벌어지는 ‘딸기 뷔페’ 전쟁이 대표적이다. 1인당 10만 원이 훌쩍 넘는 가격에도 예약이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딸기를 먹는 행위를



넘어 그 계절의 정점을 경험하고 SNS에 인증하는 특별한 추억까지 함께 소비하기 때문이다. 호텔은 물론 여러 빙수 가게와 베이커리에서 앞다퉈 출시하는 망고 빙수 역시 계절감을 뽐내는 대표적인 여름 한정 메뉴다. 대전의 유명 빵집 성심당의 계절 시루 케이크 시리즈와 이를 둘러싼 열광 역시 제철코어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겨울부터 봄까지는 ‘딸기 시루’가 판매된다. 봄이 가면 ‘망고 시루’와 ‘샤인, 멜론’이 여름을 알리고, 가을에는 ‘무화과 시루’와 ‘알밤 시루’가 그 자리를 잇는다. 각 계절의 가장 맛있는 순간을 케이크 한 상자에 응축시켜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강력한 희소 가치를 부여하자 ‘오픈런’과 긴 줄서기가 뒤따랐다. 제철을 소비하는 것이 하나의 계획된 이벤트이자 즐거운 문화가 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현상이다. 요즘에는 ‘금수저’에 빗대, 제철 과일을 마음껏 즐기는 ‘제철과일수저’라는 말도 등장했다. 그때그때 가장 신선한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경제적, 심리적 여유와 정보력을 부러워하는 표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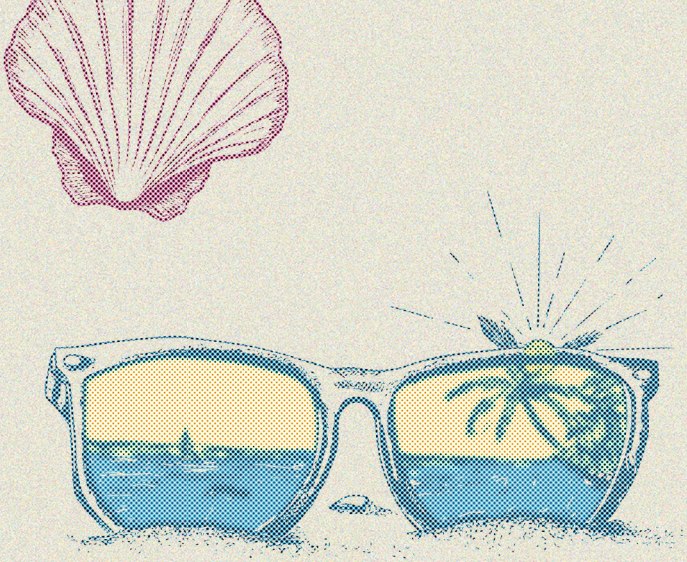
제철 경험, 그 순간 그곳에 내가 있다

제철코어는 미식 경험을 넘어, 그 계절의 공기를 온몸으로 느끼는 ‘체험’으로 확장된다. 봄에는 벚꽃, 가을에는 단풍처럼 계절의 변화를 알리는 자연 현상 자체가 거대한 축제의 장이 된다. 각 지자체에서 열리는 계절 축제는 제철을 가장 몰입감 있게 즐기는 방법으로 각광받는다. 1월 ‘철원 한탄강 얼음 트레킹 축제’에서 얼어붙은 강 위를 걸으며 겨울의 정취를 만끽하고, 4월 ‘고양국제꽃박람회’에서 봄의 화사함을 즐기며, 10월 ‘진

주남강유등축제’에서 밤하늘을 수놓은 등불을 감상하고, 11월 ‘익산천만송이국화축제’에서 늦가을의 정취에 흠뻑 빠지는 식이다. 전통적인 계절 축제와 더불어,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된 ‘시즌제 이벤트’는 제철코어 경험의 정점을 보여준다. 여름의 상징이 된 ‘흙썩쇼’와 ‘워터밤’이 대표적이다. 이들 페스티벌은 인기 가수의 공연에, 여름에만 가능한 ‘물놀이’와 ‘음악’을 결합해 대체 불가능한 경험을 선사한다. 흙썩쇼에서는 수백 톤의 물대포가 터지고, 워터밤에서는 관객과 가수가 한데 어우러져 물총 싸움을 벌인다. 19세 이상만 입장할 수 있는 ‘워터밤’은 특유의 자유롭고 열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SNS에 올릴 만한 화려한 장면을 연출하며, 매년 새로운 ‘워터밤 여신’을 탄생시키는 등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왜 우리는 ‘순간’에 집착하는가

사람들이 제철코어에 열광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시간의 희소성’에 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쉽게 구할 수 없는 것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 특정 시기에만 맛볼 수 있다는 시간의 희소한 가치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때가 아니면 안 되므로 소비자의 욕구를 즉각적으로 자극하며, 놓치면 후회할 것이라는 손실 회피 심리를 부추긴다. “지금이 아니면 1년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사실 자체가 강력한 구매 동기가 되는 것이다. ‘기간 한정’, ‘수량 한정’ 같은 문구에 소비자들은 기꺼이 지갑을 여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는 소비의 패러다임이 ‘소유’에서 ‘경험’으로, 나아가 ‘순간’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철 경험은 한정된 시간과 공간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감각을 제공하며, 소비자들을 기꺼이 그 ‘순간’ 속으로 뛰어들게 만든다. 역설적이게도 찰나의 순간을 즐기기 위해서는 그 누구보다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한정판 제품을 사기 위해 밤새 줄을 서는 ‘오픈런’은 필수가 되었고, 특정한 때에만 열리는 공연이나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피켓팅(피 튀기는 티켓팅)처럼 필사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결국 제철코어는 소유할 수 없는 ‘시간’이라는 가치를 소비하는 행위이며, 덧없이 흘러가는 현재를 가장 충실하게 붙잡으려는 현대인의 욕망이 투영된 현상이다.

전망

현대인의 소비 패턴은 ‘시간’의 가치를 극도로 중시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시간을 자원으로 여기고, 세상을 점점 더 짧은 단위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찰나를 중시하는 현대인의 관점을 가장 감성적으로 표현한 소비가 바로 ‘제철코어’ 트렌드다. 따라서 제철코어 트렌드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시가 개인의 취향과 건강 상태, 현재 위치를 분석해 ‘지금 당신이 경험해야 할 최적의 제철코어 활동’을 실시간으로 추천해 주는 초개인화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다. 사라져 가는 계절감을 기술을 통해 더욱 정교하게 복원하고 즐길 수도 있을 것이다. 제철코어는 갈수록 더욱 중요한 라이프스타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빠진 세계, 왜 난리일까?

한국적 디테일의 힘

K-Pop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의 인기가 좀처럼 식을 줄 모른다. 지난 6월 20일 공개된 이후, 무려 41개국 넷플릭스 영화 부문 1위를 차지하며 화제를 모았고, OST 역시 글로벌 차트를 휩쓸었다. 메인 테마곡 ‘Golden’은 빌보드 글로벌 차트 정상에 오르며 전 세계 팬들을 사로잡았다.

영화의 주인공은 가상의 3인조 걸그룹 ‘헌트릭스’. 화려한 무대 위에서는 아이돌로, 무대 밖에서는 악귀를 사냥하는 영웅으로 활약한다. 일종의 현대적 ‘무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은 K-Pop과 K-무속을 결합한 독특한 캐릭터다. 한국에서도 쉽게 시도되지 않았던 파격적인 설정이기에 더욱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스틸컷
출처: 넷플릭스 제공

전 세계가 <케이팝 데몬 헌터스(K-Pop Demon Hunters)>에 열광하고 있다. 아이돌의 노래와 춤에 무당의 신칼이 빛나고, 민화 속 호랑이가 걸어 나온다. 그 여운은 화면 밖으로 번져 박물관을 새로운 성지로 만들었고, 성곽길의 돌담과 따뜻한 국밥마저도 일상의 풍경처럼 스며들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토록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빠져드는 걸까?

Text 최행좌 Photo 황지현, 한국관광공사 자료제공 국립중앙박물관

새롭고, 신선하다. 작품에는 좌절을 딛고, 용기를 찾는 순간, 우정과 희생, 그리고 자기 확신으로 나아가는 성장 서사도 담겨 있다. 케데헌이 인기를 얻는 비밀은 무엇일까? 케데헌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한 K-Pop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한국적 디테일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기 때문이다. 별자리가 새겨진 사인검, 무당의 신칼 등 전통 무기가 등장하고, 전통 민화 ‘작호도’ 속 까치와 호랑이는 그대로 캐릭터로 살아난다. 도깨비와 물귀신, 저승사자 같은 몬스터도 한국 설화에 근거해 낯설지 않게 풀어냈다.

현실적인 배경도 물입을 더한다.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콘서트하는 모습,



낙산공원 성곽길을 걷는 모습, 명동거리의 핫도그 가게와 인생네컷 부스까지 서울의 일상은 그대로 작품 속 무대가 된다. 시청자들은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서울을 여행하는 듯한 경험을 한다.

악귀 아이돌 보이그룹 ‘사자 보이즈’의 무대는 현실의 K-Pop 팬덤 문화를 비춘다. 콘서트에 가고, 응원봉을 흔들고, 굿즈를 사는 모습은 실제 팬덤 문화를 똑 닮았다. 듀스, 엑소, 트와이스 등 실제 K-Pop 아이돌의 음악이 흐르는 순간, 영화는 더욱 생생하게 현실과 맞닿는다.

K-전통문화로 변진 열기

케데헌의 글로벌 흥행은 곧장 한국 전통문화에 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박물관에는 이른 아침부터 ‘오픈런’ 행렬이 늘었고, 박물관 기념품인 ‘뮤즈(Museum+Goods)’는 품절 사태를 빚고 있다. 심지어 유튜브에는 ‘박물관 오픈런’ 현장을 기록한 영상이 줄줄이 올라오며 또 다른 열기를 더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K-컬처의 성지’로 떠오르며 기록적인 관람객 행렬을 이끌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따르면 지난 7월 관람객 수는 69만 4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33만 8천여 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올 7월 말 기준



누적 관람객은 341만 명으로, 개관 20년 만에 최다 관람 기록을 경신했다. 박물관 공식 굿즈 매장 ‘뮤즈’ 역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4% 늘어난 115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까치·호랑이를 모티브한 상품이나 반가사유상 굿즈처럼 전통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제품들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품절 대란’을 불러왔다. 특히 전통 민화 ‘작호도’ 속 까치와 호랑이를 캐릭터화한 ‘까치 호랑이 배지’는 케데헌 속 캐릭터와 닮아 더욱 주목받았다.

흥행의 불길은 온라인으로도 번졌다. 유튜브에는 ‘국립중앙박물관 오픈런’을 다룬 브이로그와 리뷰 영상이 잇따라 올라오며, 해외 시청자들의 댓글과 반응도 줄을 잇고 있다.

케데헌은 K-Pop과 한국 전통문화가 만나는 새로운 접점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 화려한 장식으로 치장한 낯선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한국스러움’이야말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증명한 것이다. 어쩌면 지금 모두가 케데헌에 열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케데헌이 쏘아 올린 서울

케데헌 속 무대가 된 서울의 명소들이 이제는 세계인의 ‘성지순례’ 장소로 떠오르고 있다. 영화 속 장면과 현실의 풍경이 겹치지며, 익숙한 공간은 더욱 특별하게 다가온다.



N서울타워

이야기의 절정은 서울의 심장, N서울타워에서 펼쳐진다. 빛나는 야경 속에서 별이는 대규모 전투는 영화의 명장면이자 도시의 새로운 신화를 만든다. 현실의 N서울타워는 전투 대신 평화와 낭만을 품은 전망 명소로, 낮과 밤 모두 다른 매력을 지닌다.



낙산공원 성곽길

루미와 진우가 서로의 마음을 나누던 장면은 이곳 성곽길에서 피어났다. 능선을 따라 걸으면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보이고, 해 질 무렵 노을이 번지면 영화 속 로맨틱한 분위기가 그대로 전해진다. 밤이 되면 노란 조명이 성곽을 감싸며 드라마틱한 야경을 완성한다.



북촌한옥마을

고즈넉한 한옥 지붕 위에서 루미와 진우가 ‘Free’를 함께 불렀던 순간. 전통과 감성이 어우러진 골목은 영화 속 서정적인 감정을 더욱 깊게 만든다. 낮에는 전통의 멋을, 밤에는 낭만적인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명동거리

서울의 대표 쇼핑 거리 명동에서는 사자 보이즈가 ‘Soda Pop’을 선보였다. 인파로 가득한 거리에서 펼쳐진 무대는 예측할 수 없는 긴장과 에너지를 불어넣는다. 활기와 설렘이 뒤섞인 명동은 현실에서도 늘 무대 같은 공간이다.

자랑질 코너

무엇이든
자랑하세요!하루의 풍경,
절망에서 희망을
건져 올리다

권재용 서부산전력지사 변전운영팀 대리



빛

매일 아침
초대한 적 없는
무례한 하객들로 가득하다.
나를 긍정할 때는
찾아오지 않는.

기적

날개 없이 달리자
빛이 부서질 때까지
바람을 삼아가렴
내 숨결아
시간을 흘날려다오
내 것이 아닌 계절들아

지렁이

꿈을 밟았다.
삶이 발바닥 친다.

비

비가 내린다.
빗소리는 왜 악보가 없는지
길들이고 싶은 숲속에
내가 길들여진다.
언제부터
울음소리가 빗소리를 삼아간다.
흐린 날엔 수많은 내가 내린다.

독백

웬지 그림자는
솔솔함을 아는 것 같아.
내 뒷모습을 너무 삼았거든

꿈 I

나의 꿈은
부러지기 쉬웠다.
밤의 눈이 감긴다.
별이 되려는 눈빛과
그라움이 되지 않으려는
불빛들
불행도 아름다울 수 있을까.

밤비

별빛들이 의식하는 기점으로
물든 밤거리는
땅에 묻은 빗소리를
애도하는 어둠들로 고요하다.

눈물

영혼과 육체의 슬픈 교감
내 영혼이 살아 있다는
몸부림

우산

또 다른 하늘을 펼쳤다.

노을

노을이 진다.
하루를 불태웠다.
이토록 화사한 결망이라니!

꿈 II

그림자가 무거워
날지 못하는 새들은
매일 밤 날아오르

별빛

아무리 멀어도 찾아오는
선행들로
나의 시간은 하늘에서 멈춘다.
삶이 빛나기 시작했다.

*권재용 대리는 100개가 넘는 습작시를 편집팀에 보내왔다. 권재용 대리의 시는 일상에서 건져 올린 시어들로 투박하지만 진솔하게 절망에서 희망을 노래한다.

자랑질 코너에서는 **사우 여러분의 취향, 재능, 취미, 자녀 등등 무엇이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사우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코너이니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자랑해 주세요.

ICT운영처



♡

Q

▽

🔖

한전은 전통시장 상인회, 누리플렉스와 전력데이터 및 인공지능을 접목한 소상공인 맞춤형 에너지 절감 서비스 개발을 추진한다. 이 서비스는 AI를 활용해 전력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최적 요금제 추천, 계약전력 변경 등 실질적인 요금 절감 방안을 제공한다. 또한 전력사용데이터를 기반으로 과다요금 발생 구간을 사전에 예측하고, 고객 방문을 유도하는 기능도 제공할 예정이다.

#ICT운영처 #누리플렉스 #소상공인_맞춤형_에너지_절감_서비스 #최적_요금제_추천 #계약전력_변경 #고객_방문_유도 #매출_증대

ICT기획처



♡

Q

▽

🔖

한전은 신용보증기금과 손잡고 ESG 인증모델을 개발하여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에 나선다. '전력데이터 활용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은 한전이 보유한 전력데이터와 신보의 금융 인프라를 결합해 기업의 전기사용량 절감 실적을 기반으로 ESG 성과를 인증하고 우수기업에 금융 우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ICT기획처 #신용보증기금 #ESG인증모델 #중소기업_ESG경영_지원 #전력데이터_금융_인프라_결합

HVDC건설본부



♡

Q

▽

🔖

우리 본부는 어린이집 원아들과 함께 양재아트센터 전기박물관 견학에 나섰다. 74명의 아이들이 참여해 전기가 발생하는 원리,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다. 아이들이 전기가 공기와 같이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자원임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HVDC건설본부 #양재아트센터 #전기박물관 #견학 #어린이집 #소중한_전기 #전자 #반짝이는_노빛

경남본부



♡

Q

▽

🔖

우리 본부는 기후변화로 빈번해진 극한 호우로 인한 지반 붕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현장 실무자용 보강토옹벽 보호매뉴얼을 개발했다. 이는 대한토목학회, 부산도시공사와 협업하고 개발한 것으로, 전사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경남본부 #보강토옹벽 #보호매뉴얼 #대한토목학회 #부산도시공사 #안전사고_예방

경기북부본부



♡

Q

▽

🔖

우리 본부는 8월 한 달간 남양주시 평내변전소 건설 예정지역의 결식우려아동 20명을 대상으로 여름 방학 기간에 도시락을 제공했다. 이와 더불어 직원들이 각 가정에 방문해 어린이를 인솔하여 외식도 함께하였다. 모든 어린이가 행복하고 편안하길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 잘 전달되었길!

#경기북부본부 #남양주 #평내변전소 #결식우려아동 #여름방학 #사회공헌활동 #함께_외식해요

영암지사



♡

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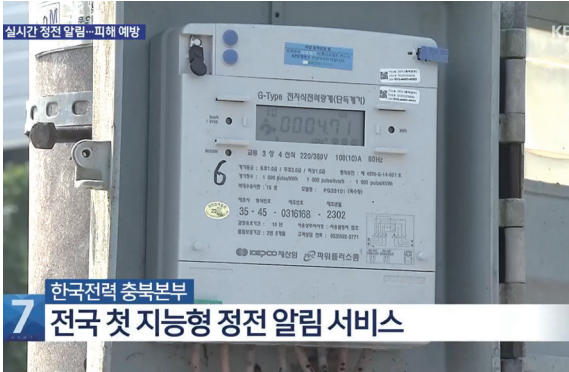
▽

🔖

우리 지사는 배전 공사현장 고소작업자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고리를 시범도입했다. 이는 지상에서도 고소 작업자의 안전고리 체결 여부를 실시간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작업자의 안전장구 미착용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암지사 #스마트_안전고리 #추락사고예방 #산업재해예방 #안전제일 #생명을_지키는_습관

충북본부



♡

Q

▽

🔖

우리 본부는 AMI를 활용한 실시간 정전알림 서비스인 Power-off Alert를 개시했다. AMI 통신모뎀에서 정전을 감지하여 해당 정전민감 고객들에게 신속하게 SMS로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정전에 따른 고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본부 #Power-off_Alert #AMI #정전알림서비스 #정전피해예방 #대국민_서비스 #SMS #신속

서울본부



♡

Q

▽

🔖

우리 본부는 서울교통공사,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와 공동으로 대국민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시행했다. 역사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안 쓰는 플러그 뽑기, 대중교통 이용,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 지키기, 에너지캐시백 제도 등 생활 속 에너지절약 정보를 안내했다.

#서울본부 #서울교통공사 #한국에너지공단 #공덕역 #대국민_에너지절약_캠페인 #에너지캐시백 #생활속실천

<KEPCO> N행시

9월호 테마 키워드로 나만의 N행시를
지어 보세요.
참여자분들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
품을 드립니다.

9월의 주제 '소통'

N행시 예시
소 고기는 구워야 제맛!
통 크게 먹어야 맛있다.

참여 방법 QR코드 스캔 후 답변 제출
접수 마감 9월 20일(토)까지
이벤트 상품 신세계 상품권 2만원권
선물발송일 10월 10일경



이벤트 참여하기

8월호 N행시 당첨자

노*창(0620)
몰디브 가서
입가심으로 모히토 한 잔.

윤*한(9362)
몰려오는 기대감과 불안감에 잠 못 이루던
입사를 앞두고 있는 그 시절의 그 풋풋함.

임*석(3884)
몰래 너를 바라보다
입꼬리가 먼저 반응했다.

하*승(9771)
몰래 온 손님
입장해 주세요.

이*곤(7784)
몰고 가자 이 더위
입김이 나는 겨울로

김*운(3194)
몰입은 단순한 집중이 아니라
입자의 충돌처럼 강렬한 창조다.

김*서(3057)
몰라도 괜찮아. 내가 다 알려줄게.
입사 첫날 선배의 따뜻한 한 마디

강*홍(4917)
몰랐던 사이에, 우리는 가장 빛나던 시절을 지나왔다.
입안 가득 퍼진 커피 향처럼, 너는 오래 남았다.

황*희(3450)
몰아치는 구매 욕구
입금 날만 기다린다.

정*혁(1747)
몰래 꾸준히 쌓은 담
입증되는 건 결국 실력

KEPCO

2025
September
vol.627

통권 627호 2025년 9월호(월간)
등록번호 나주 마00003
발행일 2025년 9월 1일
발행인 김동철
편집인 백수현

편집 한국전력공사 홍보처 (061)345-3115, 3125, 3128
주소 (우)58222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기획·디자인 ㈜이팝
인쇄 ㈜대유기획인쇄
창간일 1961년 8월 31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 전력망 확충으로 시작

AI와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을 위한
충분한 전력망 구축으로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겠습니다.



345kV 영흥송전선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